

부산상공회의소의 Story for 부산CEO Show

2023. 03 Vol. 612

WORLD
EXPO
2030
BUSAN
KOREA

3월호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의 미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Contents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AGAZINE 2023 vol. 612

발행일 2023년 3월 6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활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디자인·제작 (주)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부산상공회의소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BCCI Special

04 2030 Busan World Expo Special

- 부산상공회의소 2030부산월드엑스포 커피 에디션 출시 및 시음회 개최
- 대한상의 출입 언론사 초청 2030부산월드엑스포 프레스 투어 개최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교섭을 위한 동유럽 경제 사절단 파견



CEO 취향저격

08 부산의 대전환을 찾아

부산포해전(釜山浦海戰)

12 해외 여행지 추천

부산과 닮은 도시 2025세계박람회 개최지
오사카로 떠나는 여행

16 메시지 인 시네마

인류를 위한, 인류가 함께하는 기술에 대한 스펙터클
<지오스톱>

18 CEO 단골 맛집

40년의 역사가 깃든 꼬리곰탕 맛집 '장수장 꼬리곰탕'

20 가객의 인문학

영감의 도시에서 X4 <Present>

ZOOM in BCCI

22 STORY OF 캡틴장

24 부산 경제계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

26 기업포커스

고려제강(주)

30 Look at Me

스타트업 '쥘팜코브'

트렌드 TALK

34 2023 제12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경제 트렌드

36 경제키워드

- 소셜 경고 넘어서는 로컬형 기업도시
- Chat GPT를 통해 알아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혁신

40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42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46 멤버스 라운지

- 회원서비스
-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부산상공회의소 2030부산월드엑스포 커피 에디션 출시 및 시음회 개최



2030부산월드엑스포 커피 에디션을 들고 기념촬영하는 장인화 회장과 바리스타 3인



부산상회가 제작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커피 에디션

부산상의 지역출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3명과 함께 엑스포 커피 굿즈 제작

부산상공회의소가 커피도시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 맞게 지역 출신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3명과 공동으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홍보용 커피 굿즈를 제작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월 16일(목) 영도 모모스커피 로스팅 공장에서 지역 출신의 모모스커피 전주연 대표, 추경하 바리스타, 먼스커피 문헌관 대표와 함께 '커피도시 부산, 커피로 통하다'를 주제로 만든 2030부산월드엑스포 커피 에디션 시음회를 가졌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에서 생산하는 원두 중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특별히 추천하는 원두를 마시기 편한 드립백 형태로 제작한 이번 에디션은 부산 출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3명이 참여한 첫 콜라보 제품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커피도시 부산, 커피로 통하다', 커피 굿즈에 2030월드엑스포 유치 염원 담아

부산상회가 엑스포 굿즈로 커피를 선택한데는 국경을 초월해 하나의 문화이자 언어가 된 커피가 가지는 콘텐츠의 힘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커피산업 발전 조례까지 제정해 관련 산업과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커피도시 부산의 매력이 엑스포 유치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 판단도 있었다.

커피를 매개로 국제박람회기구 주요 커피벨트 회원국과의 연결성 강조

특히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박람회기구 171개 회원국 중 절반에 가까운 회원국이 포진한 중남미와 아프리카 커피벨트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이들 국가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3명이 특별히 추천하는 콜롬비아, 브라질, 엘살바도르, 케냐,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6개국 원두를 드립백 형태로 제작하였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커피 에디션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핸드 드립을 해보는 장인화 회장



모모스커피 전주연 대표는 "커피로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게 꿈인데, 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그 꿈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굿즈 제작에 함께 했다" 하였고, 추경하 바리스타도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통해 부산의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먼스커피 문헌관 대표도 "컵 테이스티스 대회와 엑스포 유치 결정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매력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말하며 이번 굿즈 제작을 계기로 부산의 매력이 커피 향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이번에 제작된 '2030부산월드엑스포 에디션'은 앞으로 부산상회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는 물론 상의를 방문한 내빈들에게도 기념품으로 제공되며, 지역경제계 차원에서 주요 기업들에게 이번 커피 에디션을 자체 기념품으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 출신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3인

모모스커피 전주연 대표



모모스커피 추경하 바리스타



먼스커피 문헌관 대표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엑스포 유치의 1차 관문인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에서 지역의 유치 열기가 중요한 평가요소인 만큼 이번에 제작한 커피굿즈가 엑스포를 홍보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엑스포 유치뿐만 아니라 부산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역의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 아이템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출입 언론사 초청 2030부산월드엑스포 프레스 투어 개최

수도권 언론에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상황 공유하는 시간까지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시, 대한상공회의소는 2월 17일(금) 9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대한상의 출입기자를 초청하여 2030부산월드엑스포 프레스 투어를 개최하였다. 이번 프레스 투어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를 앞두고 수도권 지역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 준비상황 및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개최 부지를 시찰함으로써 국제박람회 실사를 앞두고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내 분위기 북업에 나서고자 마련되었다. 행사는 간담회와 북항 하늘공원 시찰, 북항 홍보선 승선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2030월드엑스포를 향한 부산의 유치 열기는 펄펄 끓어오르고 있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지역사회 전체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2030월드엑스포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가균형발전과 남부권 중추도시 부산이 동북아에서 경쟁력을 갖춘 물류·관광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부산시의 유치활동에 수도권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인사말을 하는 장인화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도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산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발전하면 대한민국은 두 개의 바퀴로 구르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의 현지실사에 앞서 국내 전체에 뜨거운 유치 열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출입기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프레스 투어에 참석한 기자들과 기념촬영하는 장인화 회장과 박형준 시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교섭을 위한 동유럽 경제 사절단 파견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방문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및 경제협력 논의

지난 2월 6일 부터 10일까지 대한상의와 부산상의를 비롯한 상의 대표단과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동유럽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벌이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동유럽 경제 사절단은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부산상의 이영환 상근부회장, 대구상의 이재경 상근부회장, 손재일 한-루 민간경협위원장(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등 기업인으로 구성되었다.



1 2 루마니아 하원의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 및 부캐슈티 상공회의소 회장과 기념촬영

사절단은 첫 방문지 루마니아에서 마르셀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경제부 장관 등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교섭을 하였으며, 양국간의 민간 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또한 사절단에 함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은 루마니아와 방산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어진 불가리아 방문에서는 콜라 스토야노프 경제부 장관을 면담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목적과 비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지 요청을 하였으며, 경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 이영환 상근부회장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정부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원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지를 이끌어 내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3 4 불가리아 콜라 스토야노프 경제부 장관과 면담 및 기념촬영

역사의 교차점에 서다 부산포해전

글·사진_ 손민수 부산여행특공대 대표·이바구스트

釜山浦海戰

부산포를 향하는 이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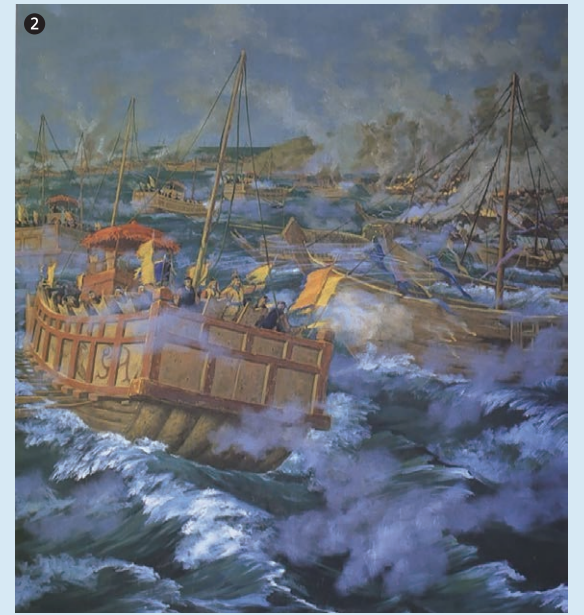
1592년 9월 1일 가덕도를 출발한 이순신 장군은 부산포(釜山浦)로 향했다. 한산도대첩 이후 출진한 4차 출전이며 8월 24일 전라좌수영을 출발한지 7일째 되는 날이다. 오전 8시경 물운대를 지나자 풍량이 심해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곧 함대를 정비하고 부산포로 나아갔다. 굳은 결의에 찬 이순신 장군과 수군들은 멈추지 않았다. 다대포에 다다르기 전 화준구미에서 왜군의 대선 5척을 격파하였다. 화준구미는 지금의 다대포항 옆 성장목재 저목장이자 옛 아시아의 물개로 불리던 조오련이 대마도를 향해 출발했던 장소이다. 이어서 다대포에서 8척의 왜선이 나타났지만 이 또한 가볍게 격파하였다. 곧이어 도착한 서평포에서는 9척의 왜선을 격파했고 절영도 즉 영도 쪽으로 계속 나아갔다. 절영도에서는 정박해 있던 대선 2척을 격파했다. 절영도는 부산포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하는 길목에 있다. 영도와 물 사이의 거리가 짧은 좁은 물막(초량목)이며 이곳을 지나면 부산포가 있는 넓은 부산항(북항)이 나타난다. 이순신 장군은 지금의 북항 지역으로 들어서기 전 절영도를 살살이 수색하고는 왜군의 본진이 있는 부산포 쪽으로 작은 탐망선(探望船)을 보냈다. 탐망선이 가져온 첩보는 놀라웠다. 부산포에 정박되어 있는 왜선의 수가 500여척이나 된다고 했다. 이어서 왜군의 선봉 4척이 지금 조선의 수군이 있는 초량목을 향해 나오고 있다는 보고가 뒤따랐다.

용두산공원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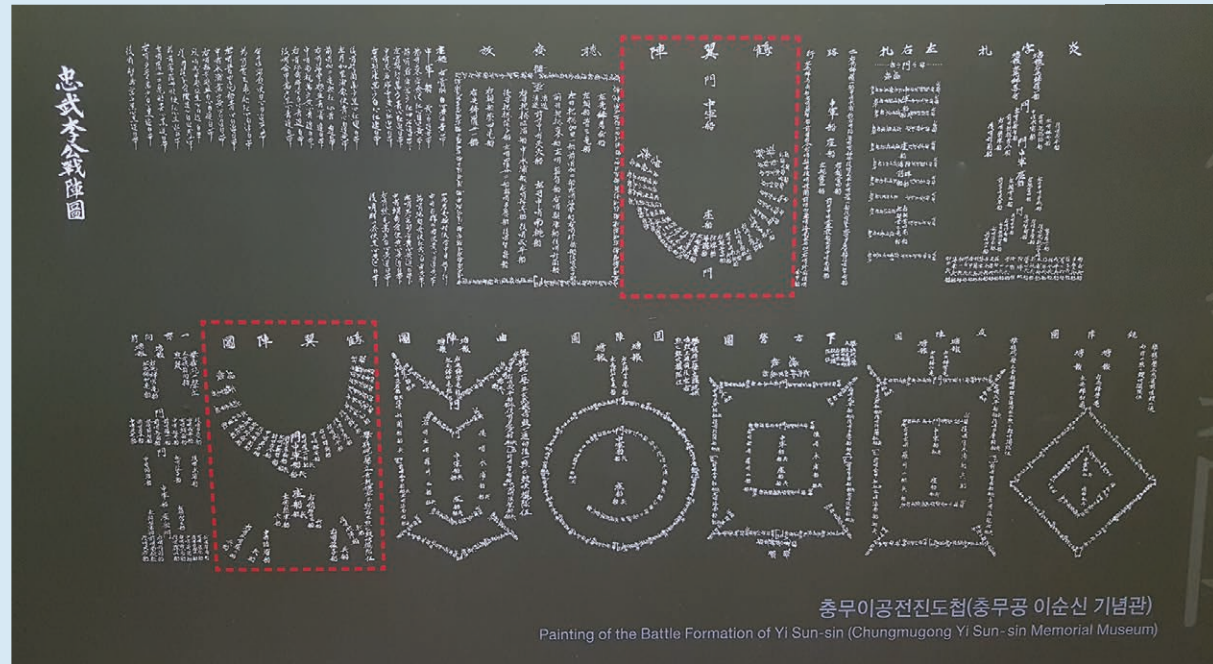
일본군의 전세를 약화시킨 부산포해전

당시 '부산포해전'을 앞둔 조선 수군의 규모는 판옥선이 74척, 협선이 92척, 도합 166척이었다. 166 대 약 500. 이순신 장군은 휘하 장수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이순신 장군의 대선배이자 조방장인 정걸은 '가덕도를 출발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 차례의 전투를 치렀으니 일단은 돌아가 피곤한 병사들을 쉬게 하고 내일 다시 부산포를 치러오자' 했다. 녹도만호 정운은 '지금 눈앞에 적들이 있는데 이들과 같은 하늘아래 하루라도 더 있을 수는 없다. 무조건 공격하자'고 했다. 3대1의 병력차를 확인한 이순신도 긴장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이순신은 곧 결단을 내렸다. "지금 적들을 앞에 두고 물러섬을 보인다면 필히 우리를 멸시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바로 공격한다" 사실 이순신 장군은 한산해전 이후 다음 전투를 위해 1000여척의 군량을 확보하는 등 다음 전투를 대비하고 있었다. 한산해전 이후 조선수군에 대한 두려움, 도요토미히데요시의 해전금지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던 왜군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며 부산포해전은 기회라 생각했을 것이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왜군의 첫 상륙지이자 본진인 부산포를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왜군의 전세를 약화시키고 전환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 판단하였을 것이다.



- 1 부산포해전 해전도
- 2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십경도 중 5경 부산포해전
- 3 국립해양박물관에 전시된 거북선
- 4 국립해양박물관에 전시된 이순신 장군의 충무공 장검





국립해양박물관에 전시된 조선 후기 수군의 진법을 보여주는 충무이공전진도첩

부산포해전의 상황을 역사 기록과 함께 떠올려보며

어느새 독전기가 올라갔다. 조선수군들은 이순신 장군의 지휘에 따라 장사진(長蛇陣)을 갖추었다. 장사진은 손자 병법에 나오는 진법으로 이를 수군에 응용하여, 함선을 일렬로 배치하여 협수로(狹水路)를 지날 때 사용하기도 했고 뱀이 자기의 꼬리를 물려고 돌 듯 한쪽으로 돌면서 특정지점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훈련을 했다. 돌격선인 거북선을 필두로 우부장 녹도만호 정운과 전부장(前部將) 방담첨사 이순신(동명이인) 등이 선봉에 나서 조선수군을 향하던 왜선 4척을 순식간에 섬멸하였다. 초량목을 빠져나와 멀리 부산포를 바라보니 부산진성의 동쪽에 있는 산에서 5리쯤 되는 언덕 아래(우암동 일대로 추측) 470여척의 왜선이 세 곳으로 나누어 정박하고 있었다. 부산포가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수의 왜선 규모에 이순신 장군의 긴장도 커졌을 것이다. 조선수군을 바라보는 왜군의 두려움은 더욱 컸을 것이다. 조선수군의 거침 없는 돌격에 왜군들은 산으로 올라가 6개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는 다양한 무기들을 쏘아 대었다. 조총과 활은 물론이고 편전과 총통을 쏘기도 했다. 사실 편전과 총통은 조선의 무기이다. 실제 전투 후에 왜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들을 보면 조선의 편전과 지자총통, 현자총통, 대완구 등이 있는데 이는

왜군이 조선의 무기를 활용하여 수군을 공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포에서 마주한 왜군들을 향해 발포를 시작하자 장군전, 피령전, 철환, 조란탄과 화살들이 아치를 그리며 적진을 향해 날아갔다. 왜선은 산산조각이 나고 훔날리는 판자가 하늘을 뒤덮었다.

- ① 임진왜란 때 주로 사용한 화포 천자총통(天字銃筒)
- ② 임진왜란 때 주로 사용한 화포 현자총통(玄字銃筒)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③ 통영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이순신 장군 초상화
- ④ 부산포해전에서 전사한 정운 장군을 추모하는 정운공순의비
- 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친필로 작성한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임진왜란 당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부산포해전

연구자들에 따르면 부산포해전은 4시경 시작되어 최대 7시반 정도까지 이어졌을 것이라 한다. 3시간여 만에 100 여척의 왜선이 격침되고 엄청난 수의 왜군들이 전사했으며 왜군의 전의는 상실되었다. 반면 조선군의 피해는 미비했다. 함선피해는 없었고 녹도만호 정운을 포함한 6명이 전사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야말로 대승(大勝)이었다. '부산포 해전' 임진왜란 당시 가장 큰 전과(戰果)를 올린 해전이지만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할 때 부산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부산포해전을 아는 사람은 더욱더 없을 것이다. 부산시민들조차 부산포해전의 승전일인 9월 1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5일이 '부산시민의 날'임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해양대학교 김강식 교수는 '임진왜란 시기 부산포의 위상과 해전'이라는 논문에서 부산포해전을 "경상도와 전라도의 두 수군들이 연합하여 대승을 거둔 전투로서 임진왜란 시기의 전세를 바뀌게 할 만큼 획기적인 승리였다. 부산포해전의 패배 이후 일본군의 수군은 서해로의 진출이 불가능해졌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으며, 동시에 육군의 진출도 어렵게 되었다. 이후 일본군은 한반도 남단에 고립되면서 강화회담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조선에서는 일본군의 군량 공급지와 보급지를 공략하여 승리함으로써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부산포해전은 임진왜란 시기의 여러 해전 중에서 일본 전선을 많이 쳐부순 대첩 중의 하나였으며, 일본 수군의 기동력을 약화시켜 전쟁사 전체의 흐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전투였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부산포해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특히 2030월드엑스포로 전 세계가 주목할 북항에서 펼쳐졌던 임진왜란의 물줄기를 바꾼 역사의 '대전환점'이었으며, 임진왜란 23번의 해전 중 유일하게 이순신 장군 스스로가 '대전(大戰)'이라 기록했던 '대첩(大捷)!', '부산대첩'이었다.



부산과 닮은 도시 2025세계박람회 개최지 오사카로 떠나는 여행

글·사진_ 문철진 여행작가



이웃 나라 일본에서 부산과 꼭 닮은 도시를 꼽으라면 단연 오사카다. 일본 제2의 도시이자 항구도시로 일찍이 무역이 발달한 오사카는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고 성격이 화통한 것까지 부산과 비슷하다. 게다가 오사카는 2025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으로선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도시다. 부산에서 한 시간 남짓 비행기를 타면 도착하는 가까운 곳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주말을 이용한 1박 2일 여행도 좋고 2박 3일이나 3박 4일의 넉넉한 일정도 좋다. 오사카의 멋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여행지 4곳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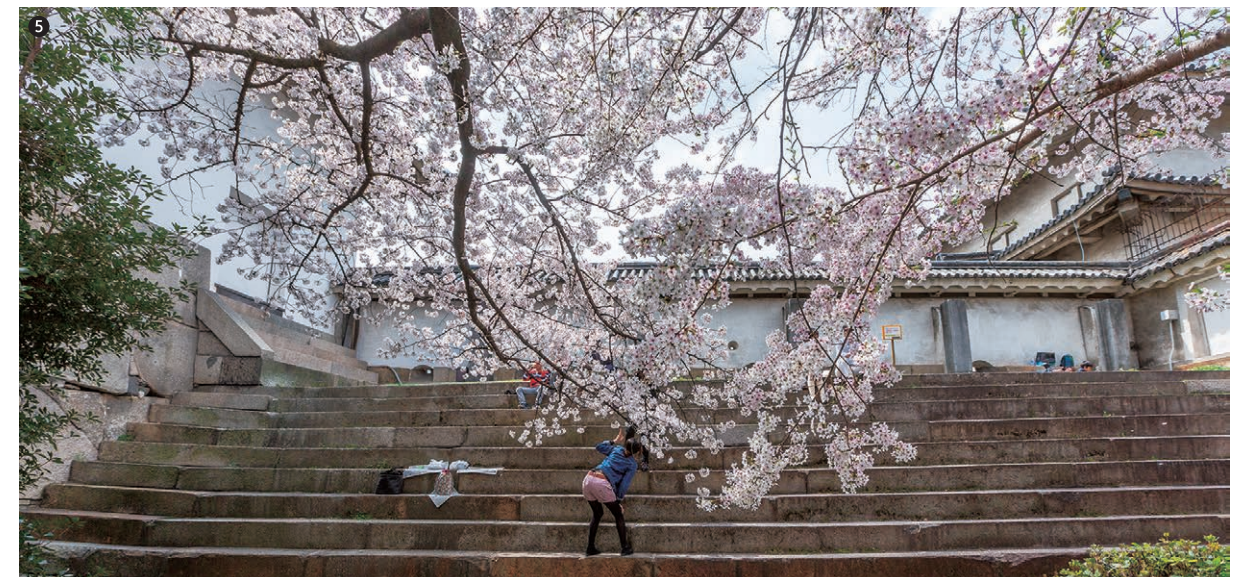


오사카의 상징, 오사카성

오사카성은 우리에게겐 역사의 전범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3년에 천하 쟁탈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쌓은 성이다. 성 가운데 우뚝 솟은 천수각은 2년 뒤인 1585년에 세워졌는데, 5층 8단에 검은 옥칠을 한 판자와 금박 기와, 금 장식 등을 보면 그 시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을 하고도 남는다. 오사카 어디에서도 천수각을 볼 수 있으니 오사카성은 오사카의 중심이요 상징일 수밖에 없다. 천수각은 지금 전시실과 전망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꼭대기에 위치한 전망대에 오르면

오사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사방 1km 내에 성벽과 해자를 온전하게 품고 있는 오사카성은 구마모토성, 나고야성과 함께 일본의 3대 성으로 손꼽힌다. 성곽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역시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다. 3월 말부터 피기 시작한 벚꽃은 4월 초까지 오사카성 일대를 분홍빛으로 물들인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벚나무 숲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수많은 벚나무들을 만날 수 있다.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날에는 꽃비가 내리는 일본의 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한 두 시간으로는 오사카성의 멋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반나절 정도 느긋하게 일정을 잡고 천천히 오사카성의 매력을 취해보자.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도시락을 준비해 오사카성 안에서 먹는 것도 추천한다. 일본 편의점은 워낙 먹을거리가 다양하고 맛도 좋아서 한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다. 해질녘에 찾아가서 황홀한 일몰과 오사카성의 야경을 구경하는 것도 좋다.

- ① 오사카성 성곽과 해자
- ② 벚꽃이 활짝핀 오사카성 천수각
- ③ 오사카성 천수각 전망대에서 바라본 오사카시내 풍경
- ④ 전망대에서 본 오사카 야경
- ⑤ 오사카성의 봄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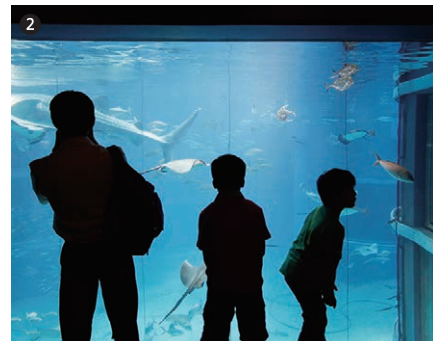


항구도시 오사카의 맛이 가득한 텐포잔 하버 빌리지

오사카항 근처에 위치한 텐포잔은 강의 퇴적작용으로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야트막한 언덕지대다. 높이는 4.53m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텐포잔(天保山)’, 즉 가장 낮은 산으로 불렀다. 아무리 낮아도 산은 산이기에 텐포잔에 오르면 텐포잔 상인회에서 등정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위트가 넘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1990년에 대형복합쇼핑몰인 ‘텐포잔 마켓플레이스’가 들어서면서 텐포잔 일대 개발이 빨라졌다. 바닷가에 아찔하게 솟은 ‘텐포잔 관람차’를 비롯해서 진짜 바다 속을 헤엄치는 듯 실감나는 수족관인 ‘카이유칸’, 15세기에 다니던 범선을 재현한 ‘산타마리아 유람선’ 등이 속속 생겨나면서 즐길 거리가 가득한 관광지로 변신했다. 특히 ‘카이유칸’은 거대한 크기의 고래상어가 살고 있어서 더욱 특별하다. 너비 34m, 깊이 9m 크기의 수조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양한 바다 생명체들을 만날 수 있는데, 유려한 몸짓으로 물살을 헤치며 유행하는 고래상어의 아름다운 모습은 ‘카이유칸’으로 당장 달려가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지구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가이아 이론을 테마로 환태평양 화산대와 환태평양 생명대를 14개의 대형 수조로 재현했다.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바다 생명체를 감상하다보면 어느새 두 세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1 텐포잔 하버 빌리지
2 카이유칸
3 카이유칸 고래상어
4 산타마리아 유람선



5 도톤보리 풍경
6 타코야키

오사카 미식의 중심, 도톤보리

‘먹다가 망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오사카는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천하의 부엌’이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재료가 풍부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오사카는 단연코 일본 최고의 미식 도시다. 그 중심에 도톤보리가 있다. 도톤보리 강 양쪽으로 500m 남짓 이어진 거리인 도톤보리에는 오사카를 대표할만한 먹거리들이 즐비하다. 서민들의 간식인 타코야키를 비롯해 일본식 빈대떡인 오코노미야키, 우동과 라멘, 회전초밥 등 하루 종일 먹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건물을 뒤덮은 간판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움직이는 계와 커다란 복어, 오사카 수호신인 에비스 등 입체적이면서도 컬러풀한 간판들이 도톤보리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관광객들은 이들 앞에서 저마다의 추억을 담느라 바쁘다. 밤이 되면 간판들이 불을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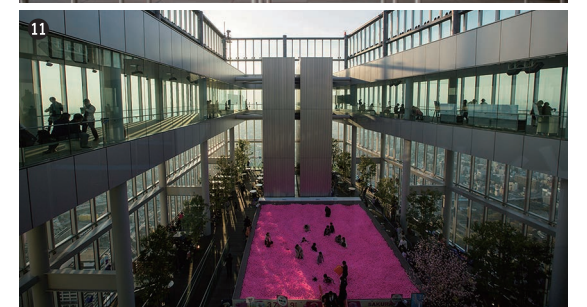


7 도톤보리의 간판
8 글리코상

더욱 화려해진다. 특히 결승선을 통과하는 마라토너의 모습을 한 ‘글리코 상’은 유독 인기다. 식품회사 글리코의 간판인데 그 앞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늘 붐빈다. 도톤보리강을 따라 운행하는 유람선도 놓칠 수 없다. 도톤보리 리버크루즈는 돈키호테 건물 앞에서 탈 수 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강에서 도톤보리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각을 즐길 수 있다.

오사카를 한눈에! 아베노 하루카스 300

어느 도시를 여행하건 전망대를 찾는 건 필수다. 도시의 구석구석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사카에도 그런 전망대가 있다. 높이가 무려 300m. 그래서 이름도 ‘아베노 하루카스 300’이다. 텐노지 근처에 세워진 ‘하루카스 300’은 지하 2층, 지상 60층 규모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오사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하루카스 300’은 키타츠 백화점과 호텔, 오피스, 미술관, 전망대 등으로 촘촘하게 채워졌다. 특히 60층에 위치한 전망대는 360도로 오사카를 조망할 수 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날씨가 좋을 때는 멀리 교토타워까지 보인다. 전망대 아래 59층은 옥외 광장으로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오사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58층은 나무를 심어 하늘 정원으로 꾸몄다. 해가 질 무렵에 찾아가면 오사카의 멋진 일몰과 야경을 동시에 맞볼 수 있다.



9 일본의 천연 삼인 돈키호테
10 하루카스 300 입구
11 59층 옥외 광장
12 전망대에서 본 오사카 야경



인류를 위한, 인류가 함께하는 기술에 대한 스펙터클 <지오스톰>

글_ 김은정 영화평론가 영화의전당 시네도시스트

“아무도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영화 <지오스톰>은 한 소녀의 목소리로 시작된다. 기온이 상승하고 빙하가 녹는 기상이변에도 인류가 지구 환경을 돌아보지 않자 대재앙이 시작되었음을 회상하는 소녀의 목소리다. 이 영화는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가뭄이 전 세계를 덮쳐 주요 도시가 파괴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환경 이변이 더 이상 개별 국가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가정한다. 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지오스톰>은 전형적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재난영화다. 전 지구적인 위기, 고집스러운 과학자, 인류의 구원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사욕을 위해 사람들을 위기로 빠뜨리는 정치인, 목숨을 건 희생으로 위기가 해결되고 가족의 안전과 사랑을 완성하는 해피엔딩 이야기다. 그런데도 이 고전적인 영웅 이야기는 마치 오늘을 비추는 거울처럼, 우리 앞에 예견된 미래처럼, 환경 재난을 맞닥뜨린 인류의 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지금 인류가 직면한 공공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Geostorm



Movie Info	
개봉 2017.10.19.	국가 미국
등급 12세 관람가	러닝타임 109분
장르 액션, SF, 스릴러	
사진출처: 워너 브러더스 코리아(주)	

● 첫 번째, 인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현실에서도 지구 환경문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시급한 이슈다. 여러 국가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개발하고, 시민들도 미세플라스틱 줄이기나 탄소배출 줄이기 등 작은 실천을 하며 노력하지만, 환경 위기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지오스톰>은 블록버스터 영화답게 인류를 단번에 구원하는 기술을 상상한다. 영화 속에서 인류는 위성 시스템으로 기후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 대응하는 수많은 인공위성을 만들어 가뭄이 든 곳에서 비를 내리고, 허리케인이 생기면 규모를 축소하고, 이상 고온이나 저온에 반응해 일정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그런 기능을 하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은 국제우주정거장, 일명 ‘더치 보이’에서 컨트롤한다. 재난 예방 시스템의 구축으로 환경 재난을 극복한 인류, 어쩌면 현실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지 모른다. 이 영화는 일차적으로 인류를 위한 기술이 가능하다는 기술 낙관적 시각을 가졌다.

● 두 번째, 결국 사람의 일

그러던 어느 날, 평소 50도가 넘는 아프가니스탄 사막 한 가운데 마을 하나가 통제로 얼어붙고, 홍콩 도심에선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지하 가스관이 폭발하는 등 재난 예방 시스템이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킨다. 급기야 전 세계의 기상이변이 여러 개의 폭풍을 발생시키고, 곧 지구를 삼켜버릴 엄청난 위력의 ‘지오스톰’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 예고된다. 이제 영웅들은 지오스톰이 발생하기 전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영화가 강조하는 것은 인류를 위한 기술 자체는 개발될 수 있지만, 그것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다. 애초에 이 영화에서는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위기를 세계가 인류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해결했다. ‘더치 보이’는 17개의 국가에서 온 600여 명의 과학자가 만든 시스템이다. 어느 한 명의 기술이 아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수도, 역설적으로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이 시스템은 특정 몇 명의 그릇된 욕망으로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 세 번째, 만남의 당위

어느 과학자의 고집이나 희생보다, 이 영화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만남의 이유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이다. 그리고 영화는 특정 국가의 정치나 제도, 특정인의 명석한 두뇌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가 인류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개인과 정부의 협력과 연대, 개별 국가의 공동체적 시각 등이 전제될 때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지오스톰>은 블록버스터 특유의 스타일로 편협한 시각, 폐쇄적인 권력, 갇힌 정보의 위험성도 상기시킨다. 개별 과학자 간의 소통 부재, 과학과 정치 영역의 단절 등으로 야기된 위기는 한 형제가 그들만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영화적 상상과 해피엔딩이 현실에서도 이뤄질 수 있을까. 이를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만남의 장이다. 🧠



장수장 꼬리곰탕 가게 입구



장수장 꼬리곰탕 내부



3 꼬리수육
4 꼬리곰탕

40년의 역사가 깃든 꼬리곰탕 맛집

- 1 장수장 꼬리곰탕 김행연 사장님
- 2 부산시로부터 '2023 부산의 맛'으로 선정되어 받은 명패



'장수장 꼬리곰탕'

뜨겁고 고소한 국물과 쫄깃한 고기가 어우러져 맛은 물론이고 먹는 사람들의 원기 회복에도 일품인 꼬리곰탕 맛집이 있다. 1983년부터 많은 부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장수장 꼬리곰탕'이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오래 장수하길 바라는 마음

어린 시절부터 음식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하는 장수장 꼬리곰탕의 김행연 사장님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항상 요리사 또는 음식점 사장님 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집에서 곰탕을 즐겨 먹은 김행연 사장님은 고객들이 곰탕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라는 의미에서 장수장 꼬리곰탕이라는 상호명으로 1983년 4월 15일 음식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주요메뉴는 꼬리곰탕과 꼬리수육

장수장 꼬리곰탕은 상호명처럼 꼬리곰탕과 꼬리수육이 주요 메뉴이며, 한우 도가니탕도 있다. 장수장을 찾는 고객들의 표현을 빌리면 꼬리곰탕은 국물이 담백하고 고소한 것이 특징인데, 국물을 한입 먹으면 고소한 맛이 입안 전체에 퍼지는 느낌을 준다고 한다. 담백하고 고소한 국물 맛의 비결은 대형 솥에 한우 사골 뼈를 넣어서 장시간 고아내는데 있다고 한다. 또한 꼬리곰탕과 꼬리수육에 사용하는 고기는 청정 호주산 최고급 육우를 사용하는데,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우며 장수장 꼬리곰탕에서 직접 만든 특제 소스에 함께 찍어먹으면 맛이 잘 어우러진다.

싱싱하고 좋은 재료로 엄선된 밑반찬들

김행연 사장님은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반여농산물 시장을 방문하여 당일 고객 상차림에 올라갈 배추, 무, 대파, 정구지 등

꼬리곰탕, 꼬리수육과 각종 반찬들



채소들을 직접 구매한다고 한다. 그리고 배추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깍두기, 파김치 등 장수장 꼬리곰탕에서 직접 담근 다양한 김치가 고객들에게 제공되는데, 고객들이 몇 번을 더 달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김치를 담그는데 들어가는 젓갈, 고춧가루 등도 모두 국내산 최고급 재료를 사용한다.

3대가 함께오는 맛집

장수장 꼬리곰탕은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단골고객도 많다. 가끔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삼대가 식사를 하러 오는데, 다 먹고 나가는 길에 사장님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 고맙다며 앞으로도 계속 먹을 수 있게 건강하시라는 덕담을 하고 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상공단에 있는 기업인을 비롯하여 지역의 많은 기업인들이 몇 십년간 꾸준히 단골로 찾아온다고 한다.

오랜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맛집으로

장수장 꼬리곰탕은 구포가 본점이고, 최근 남천동에 분점을 새롭게 열었다. 김행연 사장님은 40년간 축적해온 맛을 내는 비법과 경영 노하우를 분점을 운영하는 아들에게 차근차근 전수하여 앞으로도 꼭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장수장 꼬리곰탕의 역사를 이어 갈 것이라고 한다. 또한 매일 고객들을 맞이하고 맛있는 꼬리곰탕을 대접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인 만큼 힘이 닿는 데 까지 계속해서 기본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

영감의 도시에서



<Present>

글_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작가

힙합은 잘 모른다. ‘뉴진스’ 음악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다. ‘이게 무슨 가사지?’ 하다 보면 노래가 끝나 있다. 그렇더라도 그 음악을 즐기는 청년들과는 몹시 친해지고 싶다.

키오스크가 여전히 불편하다. 메타버스는 어쩐지 이질감이 든다. 그렇더라도 키오스크에 민첩하고 메타버스 가수에 열광하는 작고 조그만 어린아이를 보고 있으면 신기하다.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다.

X4의 <Present> 뮤직비디오를 봤다. 힙합과 R&B, 아이돌 가수 특유의 훅(Hook, 후렴구에 반복되는 가사)이 있어 여전히 낯설지만, 가까이하고 싶은 노래다. 노래를 몇 번 듣고 나면 어쩐지 젊고 어린 세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 들기도 한다.

X4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그룹이다. ‘자이언티’, ‘원슈타인’, ‘전소미’, ‘오마이걸의 아린’이 그룹의 멤버다. 이 그룹은 <오징어게임>의 배우 ‘이정재’가 대표인 ‘X4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지형’이 특이하다. X4는 현실의 그룹이면서 가상의 그룹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X4는 현실에서도, 메타버스의 아바타로도 활동한다. 이들이 사는 세상은 2030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그룹은 미래에서 온 그룹이다.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에 미리 도착한 아티스트인 것이다.

<Present>는 호기심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꿈속에, 꿈속에서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은 여전하지만
뭔가 뭔가 달라

All the things you never see
All the feelings you can feel
Baby It's the present
(...)

세상에 없었던 지금 이 순간이 present”

<Present>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진 음악이지만 이 노래를 만든 이가 자이언티라는 것이 눈에 띈다. 자이언티는 뮤직비디오에서 최첨단 작업실에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 ‘긱(geek) 아티스트’처럼 보인다. 실제로도 자이언티는 음악에 삶을 집중시키는 ‘긱’일 테고, ‘긱’은 우리 시대 ‘덕후’의 원조 격이기도 하다. 덕업일치(좋아하는 일과 직업이 일치하는 것)는 MZ세대가 특히 지향하는 삶이다. 자이언티는 확실히 이 시대 문화 아이콘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이언티가 우리에게 <양화대교>라는 노래를 선사한 아티스트라는 사실. <양화대교>에는 택시 운전수였던 아버지께 대한 기억, 아들의 인부를 묻는 나이 든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 주문처럼 반복되는 “행복하자 / 우리 행복하자 / 아프지 말고”는 우리를 순간 울컥하게 한다. 이 <양화대교>가 <Present>에 오버랩 되면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가늠된다.

<Present>는 뮤직비디오 구성도 특이하다. 노래 가사처럼 ‘뭔가 뭔가’ 다르다. 일반적인 그룹의 일괄적인 군무도 없고, 오히려 각자가 각기 다른 세계에서 공존하는 듯 보인다. 그러면서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 Z세대, 혹은 그 이후 알파세대(밀레니얼 세대의 자녀, 2010~2024년 출생자)가 지향할 삶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의 ‘공존’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일 것이다. <Present>는 새로운 공존 방식에 관해 질문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더 일찍 미래로 진입했다. 너무 이른 미래 속에서 깨달은 것은 IT기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동반하는 ‘함께’의 가치관과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돌봄의 가치도 되새기게 됐다. 우리는 서로를 돌봄으로써 비로소 희망을 꿈꿀 수 있다. <Present>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응원가가 된다.

십 년 전쯤, 부산일보에 ‘토포필리아’라는 표제로 연재를 했었다. 토포필리아(topophilia)는 장소를 뜻하는 topos와 사랑을 뜻하는 philia의 합성어로 ‘장소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다. 부산이 토포필리아의 장소였던 이유는 ‘바다’가 있었기 때문이고, 적어도 내게 부산은 현재와 과거, 미래가 병존해서 신비스럽게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십여 년을 부산에 살았지만, 나는 부산에서 늘 여행자처럼 느껴졌었다. 여행자의 정체성은 부산을 영감의 도시로 만들었다. 엑스포 또한 ‘부산’이라는 장소가 주는 영감에서 ‘세상에 없던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2030년, 우리 모두 부산엑스포 현장을 거닐게 되기를 바란다. 친환경 테크웨어를 입고 미세먼지 없는 박람회 곳곳을 누비는 모습도 상상해 본다. 그때는 힙합 R&B에 좀 더 익숙하게 몸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

2030 BUSAN WORLD EXPO



Story of 캡틴장

START

제임스 본드 같이 멋진 분위기의
캡틴장을 보여주는 캐릭터
by 웹툰작가 배민기

승진자 사령장 수여식(2023. 1. 31.)

승진자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부산상의를 만들어가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갑시다^^

부산세계박람회 버스 언박싱(2023. 2. 6.)

엑스포 버스와 함께 부산 전역에 2030세계박람회 유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기총회(2023. 2. 15.)

시장님 지역 화물운송인들을 위한
덕담 한마디 잘 부탁드립니다.

KNN 스타트업 캠페인 광고 촬영(2023. 2. 16.)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만들어 나가봅시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정기 이사회
(2023. 2. 20.)

부산 시민의 염원을 담아 2030세계박람회
'부산에 유치해!'를 다함께 외쳐봅시다!

부산상공회의소 제229회 의원총회(2023. 2. 22.)

지난해 부산상회는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상공인들의 위상을 제고 하였습니다^^

김민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동남권협의회 회장 예방
(2023. 2. 22.)

우리 지역 스타트업들 잘 성장하고 있지요?^^

부산 경제계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의 영상 축사

부산상의, 지역기업 술선수범 통한 지속가능 공동체 달성 다짐

지역경제계가 시대환경 변화와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각종 사회 문제로 인해 공동체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월 22일(수) 11시30분,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지역 경제계 대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지역기업의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을 반영한 '부산 경제계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인구절벽, 기후변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한

기업의 역할과 기능 확대

이번 선포식은 지역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생산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인구절벽,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자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신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영상 상영 후 참석한 지역 기업인들이 기업선언문 및 5대 실천 명제를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신기업가 정신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많은 기업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음에도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면서,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발전함으로써 기업이 올바르게 평가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기업가 정신을 함께 선언하고 있는 지역 기업인들

기업선언문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과 창의, 기업의 도전과 혁신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 인구절벽, 사회구성원의 행복추구 등 새로운 위기와 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도 그 역할을 새롭게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기업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이윤을 창출하는 과거의 역할을 넘어 고객은 물론 조직구성원과 주주, 협력회사와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선언,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업이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등대 삼아 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심을 기울일 때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본연의 경영이념을 기초로 '새로운 기업가정신'에 공감하고 실천명제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신기업가 정신 5대 실천 명제 발표

5대 실천 명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적 혁신과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가치 제고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윤리적 가치 제고 ▲안전하고 건강한 선진 기업문화 조성 ▲친환경 경영 실천 ▲지역사회 동반성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인화 회장 등 지역경제계, 부산사랑의열매에 튀르키예 지원 성금 5천만원 기탁

부산상의는 오늘 부산경제계 신기업가 정신 선포의 취지와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행사 직후 최근 지진 피해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방국인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원을 위한 성금 5천만원도 부산사랑의열매 측에 전달하였다.



신기업가 정신 선포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고자 진행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특별성금 5천만원 전달



신기업가 정신을 선언하는 장인화 회장

신기업가 정신이란?

- ▶ 시대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
- 기업목적과 역할의 확장
-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의 해법제시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 지역기업도 과거의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공동체의 번영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 이슈와 함께 저출산, 양극화,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지역경제계가 주력하고 있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와 오늘 준비한 튀르키예 성금 전달도 지역사회의 발전에 동참하는 신기업가 정신의 실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부산상의는 오늘 선포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ESG경영 확산 캠페인 등을 통해 기업이 주도하는 지역상생 프로젝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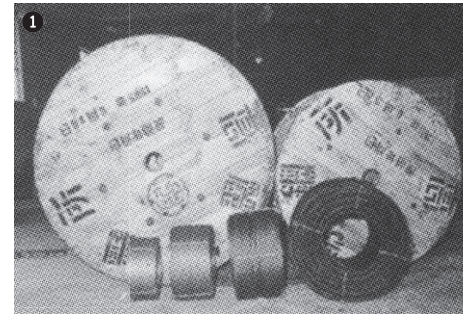
100년을 향해가는
글로벌 특수선재 전문기업



고려제강(주)

특수 와이어 생산 한 분야에서 80년 가까이 한 길만을 걸어온 향토 기업이 있다.
1945년 고려상사로 시작된 고려제강은 올해로 78년째를 맞는 부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특수선재 전문 기업이다.

- ① 고려제강 부산 본사 전경
- ② 고려제강 언양공장
- ③ 고려제강 하이로프공장



- ① 1965년 생산한 국내용 와이어 로프
- ② ③ 고려제강 와이어가 사용된 차량 Suspension Spring과 Engine Valve Spring
- ④ 고려제강 홍영철 회장

대한민국 특수선재 산업을 선도해온 Kiswire

고려제강은 1945년 설립된 이후 최고 품질의 특수선재 제품을 생산해 오며,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온 굴지의 기업이다. 1961년 첫 와이어로프 공장을 준공한 이후 지속적으로 특수선재 분야의 기술혁신을 이끌어왔다. 1964년 열처리로 소입 1호와 함께 특수강선업계 첫 일관화 공정의 효시가 되었으며, 1965년에는 특수강선업계 최초 도금로 준공, PC강선 및 강연선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오며 오늘날의 글로벌 기업이 되었으며, 현재 고려제강은 자동차, 교량, 에너지, 건축, 전기·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는 특수선재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선 특수선재 분야 최고의 기업

1945년 고려제강의 시작인 고려상사가 설립될 때만 해도 고도 산업의 중요 기초 소재인 와이어는 전량 일본 수입에 의존했지만, 고려제강 설립자인 홍종열 회장이 “기술만이 살길이다” 를 외치며, 오랜 시간 와이어 국산화를 위해 수많은 연구와 공을 들인 결과 1961년 국산화에 성공했고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 유럽, 미국 등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고려제강은 처음부터 세계 최고 강도의 와이어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집중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 글로벌 80여 개국에 수출함과 동시에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고려제강은 아시아, 북미, 유럽 등 14개국에 거점을 두고 글로벌 고객들에게 다양한 제품과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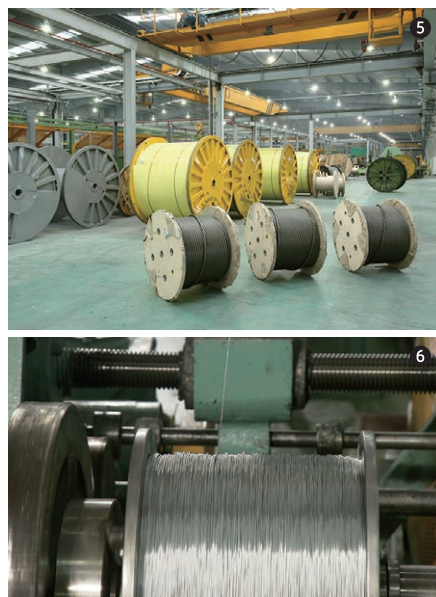
- 1 고려제강 와이어가 사용된 리스키대교(사장교)
- 2 고려제강 와이어가 사용된 광안대교(현수교)
- 3 고려제강 와이어가 사용된 거가대교(사장교)
- 4 고려제강이 생산하는 Cable Car Propulsion Rope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이뤄낸 성과들

고려제강은 2004 아테네 올림픽의 랜드마크였던 그리스 올림픽 대교를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긴 사장교인 러시아 리스키 대교, 국내 기술로 완성한 한국 최초의 현수교인 광안대교 등 국내외 62개 대교에 초고강도 와이어를 공급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는 R&D센터 운영을 통해 도금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다양한 산업 환경에 적합한 와이어 개발과 성능 향상에서 비롯되었다. 고려제강의 교량용 케이블, 해양 구조물용 와이어 로프, 자동차용 엔진 밸브 스프링, 타이어 보강용 강선 등 특수선 제품은 와이어의 고강도화와 고내식성은 물론 경량화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수명을 연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폐공장을 리모델링한 'F1963'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견인

고려제강은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수영공장'을 2016년 9월 부산비엔날레를 계기로 친환경과 예술이 어우러져 사람과 문화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인 'F1963'으로 탈바꿈시켰다. 수영공장은 1963년부터 2008년까지 와이어를 생산하던 고려제강의 모태가 되는 공장인 만큼



- 5 고려제강의 하이로프
- 6 고려제강 연양 공장의 컨트롤케이블



문화예술공간 F1963

고려제강에는 의미있는 역사적 공간인데, 이 역사적인 공간을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역사에 의미를 더 하였다. 'F1963'은 기존 공장의 형태와 골조를 유지하여, 옛 것을 활용하되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자연과 잘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진 F1963은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아울러 각종 예술 전시와 공연들이 개최되고 오페라와 영화 영상들이 상영되며, 금난새 뮤직센터 공간을 통해 예술인들이 실내악 공연,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할 수 있도록 공간도 갖추어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건축, 음악, 미술 사진에 관한 책들을 소장하는 예술 전문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대 모터 스튜디오도 있어 각종 현대 자동차의 컨셉카 등을 구경할 수도 있다. 고려제강의

F1963은 오랫동안 문화예술 인프라를 원해온 지역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F1963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부흥에 공로한 업적을 인정받아 각종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의 기업들에게 수여하는 가장 권위있는 상인 제40회 부산산업대상 사회공헌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하였다.

직원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

고려제강은 중견기업치고는 꽤 많은 6,000명의 직원이 일한다. 직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고려제강은 창립 이래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고 노조 역시 영원한 무파업을 선언했다고 한다. 또한 고려제강의 연양 공장에는 퇴직자들의 공장이 따로 있다고 한다. 평균 근로자 나이는 63세이고 최고령자는 70세가 넘는다고 하는데, 퇴직한 고급 기술자들의 노하우는 고려제강 성장에 있어 큰 밑받침이 된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고려제강은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기부활동에도 항상 앞장서 왔다. 매년 본사가 있는 수영구에 이웃 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도 앞장 서왔다. 또한 2021년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후원 기부금 행렬에도 동참하기도 하였으며, 지난해에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받은 이웃들을 위한 태풍 피해 지원금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특수선제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향토기업 고려제강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

- 7 F1963 문화예술공간 조성으로 부산시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홍영철 회장
- 8 2021년 12월 고려제강이 참여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기부금 전달



StartUP 지역의 유명한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가치 소비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주)팜코브



반품된 제품이나 재고 및 중고 제품을 재상품화 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거둬와 동시에 자원재순환과 ESG경영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이 있다. 바로 리퍼·재고 커머스 땡큐마켓을 운영하는 (주)팜코브다.

오프라인 매장을 소개하고 있는 양정환 대표



팜코브의 시작

팜코브의 양정환 대표는 삼성물산, 현대위아에서 사업기획 및 관리 업무를 해왔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대학생 때부터 가져왔던 사업의 꿈을 이루고자 창업하였다고 한다. 재직 중에도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 피크닉 용품 렌탈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도전하기도 하였으며, 퇴직 후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를 하고자 진학한 MBA에서 사례연구를 하던 중 2차 물류에 해당하는 중고/리퍼/재고의 영역에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있는 시장이었고, 국내 시장 수준은 아직 미흡하였던 만큼 편의성에 신뢰성을 더한 중고거래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고향인 부산에서 팜코브를 창업하고 부산의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시켜가면서 매년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리퍼·재고 커머스 대표주자 ‘땡큐마켓’

팜코브의 첫 서비스는 육아용품 전문 중고거래 플랫폼이었다. 짧게 쓰는 육아용품의 경우 중고에 대한 거래가치가 더욱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C2C 중고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으로 경쟁이 심화 되었고, B2C 영역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땡큐마켓’이라는 서비스를 인수 하였고, 기존 서비스와 통합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땡큐마켓’은 이커머스를 통해 반품된 제품이나 재고상품 및 중고제품을 리퍼비쉬(검수/수리/재포장 등 재상품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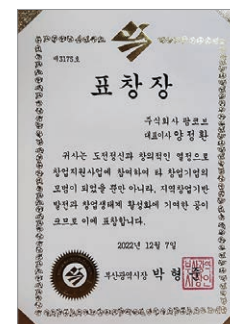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다. 현재 이커머스 반품율은 20.8%에 해당 될 정도로 매우 빈번하고 그 규모도 점점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폐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리퍼비쉬 과정이 복잡할 뿐더러, 새 상품을 파는 브랜드 및 유통사 입장에서는 기존 판매시장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원 재순환 관련 환경문제, 기업의 ESG 경영측면 및 기업 이익률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 합리적인 소비 및 가치 소비 지향으로 이러한 제품군을 원하고 있는 것에서 기회를 보았다. ‘땡큐마켓’은 이러한 소비자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금까지 40만 앱 다운로드와 43만 건의 거래를 발생시킨 리퍼/재고 대표 커머스로 성장하였다.

오프라인 확장을 통한 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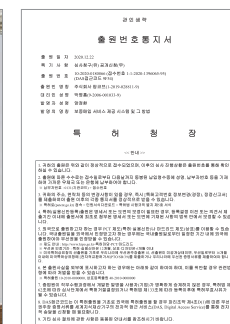
2022년에는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하였다. 바로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며 고객 접점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리퍼 제품은 특성상 제품에 대한 하자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신뢰 형성의 니즈가 필요한데, 오프라인 공간이 그러한 목적을 충족시켜줄 수 있었다. 오프라인 매장의 제품을 온라인에 판매하는 O2O 물류 관리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확보하기 위한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리퍼 제품은 SKU당 재고가 대부분 1개이기 때문에 재고를 보관하는 별도의 창고 운영은 그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오프라인 매장의 매대에 진열된 상품을 그대로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됨으로써 그 효율이 높아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



부산 대표 창업기업 인증서



부산시장 표창장



팜코브의 서비스 기술 특허 출원증



팜코브 벤처기업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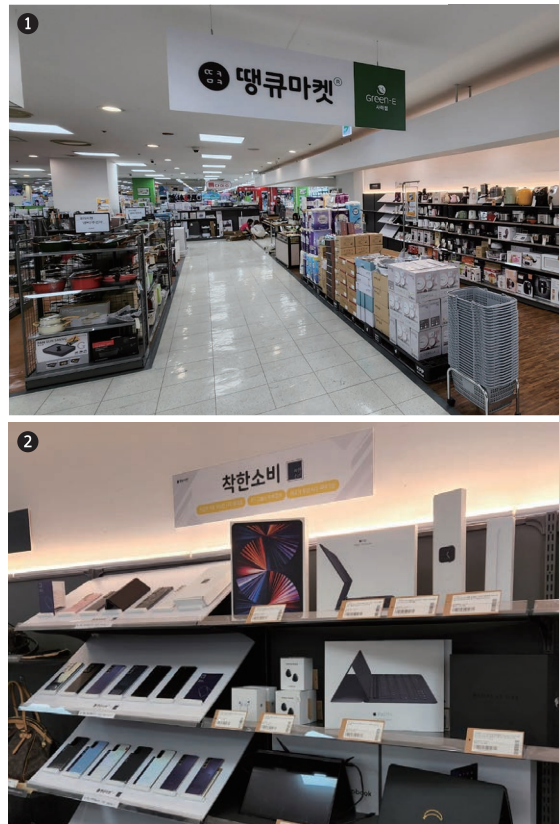


한국인터넷진흥원 장려상

하기 위해서는 재고 및 주문관리가 필수인데 Multi Location 개념을 적용한 리퍼 전용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여 기술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도심 내 소규모 물류창고가 필요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소규모 다품종 카테고리 적용할 수 있어 물류학적 가치도 매우 높다. 향후에는 이 기술을 발전시켜 온라인 리퍼(반품)를 위한 Drop&Pick-up Desk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심 내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 자체의 경쟁력도 높다. 대형마트 내 위치하여 입지적 경쟁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홍보 효과도 뛰어나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매출 이외에도 집객 효과 및 ESG 차원의 이미지도 구축을 할 수 있다. 2023년에는 또 다른 대형마트 S사와 협약을 맺고 수도권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SaaS 기반 솔루션으로 제조사 디지털 전환기술 개척

리퍼 시장이 확장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유 중 또 하나가 온라인 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 기술의 어려움이다. 재고가 풍부한 상품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사진 촬영 및 편집, 상품·광고·주문 관리 등을 온라인화 하여



① ②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땡큐마켓 오프라인 매장
③ 땡큐마켓 앱 서비스 화면



회의중인 팜코브 직원들

진행하면 되지만, 재고가 1개인 리퍼 제품은 하나만 판매되어도 가치가 소멸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자동화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땡큐마켓'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Data 기술과 외부 API를 활용해 온라인 상품 등록 및 판매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 하는데 집중했다. 팜코브의 개발팀은 이러한 기술을 연구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무작위로 폐기되는 자원의 재사용을 혁신할 출발점이라고 여기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솔루션은 SaaS 기반으로 개발되어 제조사, 유통사,

물류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반품/장기재고 등의 상품이 브랜드의 가치 훼손 없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리퍼 전문 검수센터를 확보하고, 브랜드와 함께 제품의 장기적인 회수 및 재판매 프로그램인 'Buy-Back' 역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도약

부산에서 출발한 팜코브는 부산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함께 성장했다. 부산대표창업기업 및 부산시 지정 공유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IBK창공, 예탁원 K-Camp 및 BIGS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성장의 끊임없는 도움을 받아왔다. 부산에서 활발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액센트리벤처스를 통해 투자유치도 이루어냈다. 하지만 부산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부분의 온라인 회원이 수도권 거주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오프라인 점포 2개를 추가로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유통사와 반품제품 관련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치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기업, 가치를 발굴하고 거래하는 기술을 탐구하는 기업, 팜코브의 성장과 도전을 눈여겨 봐주길 바란다. 🚀

2019 부산대표창업기업 인증서 수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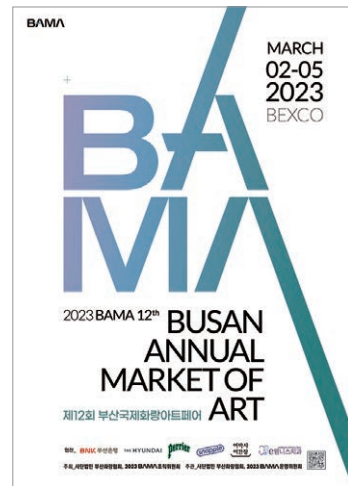


2023 제12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BAMA

성황리에 개최

지난 2월 10일 부산 현대백화점에서 개최된 “2023BAMA 프리뷰 with 아트현대”를 시작으로 지난 3월 2일 VIP오픈과 함께 개막해 5일까지 열린 “2023BAMA 제12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행복, 성장, 자연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봄과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고 불안감을 잠재우는 의미를 담은 이번 2023 BAMA는 코로나 이후 불안감 해소와 새로운 성장을 표현하였다. 간결하지만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2023 BAMA는 관람객들에게 희망과 일상의 행복을 주는 아트페어로 자리 잡았다.



디그리쇼 대표 작품 - 백고은 '관통하는'

MZ세대부터 다양한 연령대까지 즐기는 아트페어

올해 BAMA는 여성주의 미술의 대모로 불리는 윤석남 작가의 “윤석남 마스터 전”, 지역 예술학과 학생들의 졸업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알리기 위한 “디그리쇼 특별전”,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엑스와 협업하여 BAMA NFT관을 목표로 하는 “2030 NEXT ART” 까지 MZ세대부터 다양한 연령대까지 타겟으로 하는 특별전이 진행됐다.

여성주의 미술의 대모, 윤석남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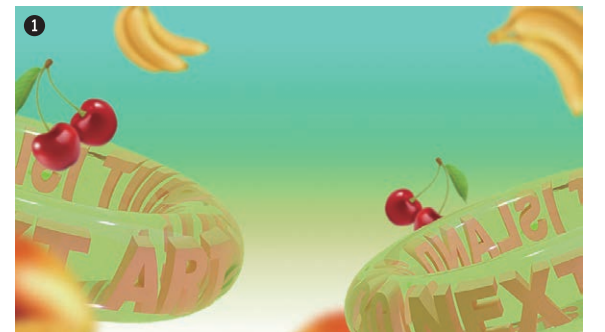
윤석남 작가는 회화와 설치, 조각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통 채색화 기법으로 역사 속에서 조명받지 못한 여성 독립 운동가들을 발굴해 재구성한 초상화 연작을 통해 의미있는 작업으로 2023BAMA 특별전을 빛냈다.

미래의 거장을 기다리는 전시

Degreeshow 한국위원회는 예술을 전공한 대학교 졸업생들의 대표 작품을 한자리에서 전시하고, 시민과 상업 화랑 앞에 선보이는 연합전시를 주도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이며, 예술계 대학교수와 학생들이 주요 구성원이다. 그간 두 차례의 전시를 통해 공익성, 참신성을 인정받은 Degreeshow는 매회 새로운 기획으로 젊은 창작자들의 작품을 선보였다.

NFT, 회화, 디지털 아트의 독창적인 공간

2030 NEXT ART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예술을 제시하는 부스를 선보였다. 전통 예술과 현대 디지털 아트의 경계에서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지며 발굴한 예술의 근원을 독창적인 현대 기술을 접목해 기존 예술 공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였다. 2030 NEXT ART에서는 새로운 기획을 통해 현대 기술과 예술을 연결해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이색적인 예술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1 2030 NEXT ART 메인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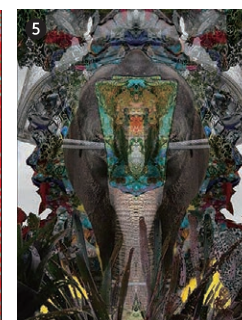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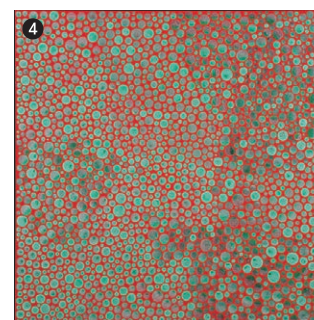
2 윤병락 NFT 사계

미술, 그 이상의 것

VIP와 일반 관람객들에게 작품, 작가 그리고 각 시대 미술의 흐름을 설명해주는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과 부산의 다양한 관광지와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방문할 수 있는 아트버스 투어 및 아트 디렉터 이소영의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 유튜버 김고흐의 “그림 하나 그렸다고 작가?” 그리고 김경희 대표의 “위대한 여정, 이진희 컬렉션”등 미술이라는 것에 국한되지않고 예술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강연자들의 다양한 아트토크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엔데믹 상황 속에서 2023 BAMA는 역대 최고 관람객과 매출액을 갱신하며 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단순한 금금증을 넘어 폭발적임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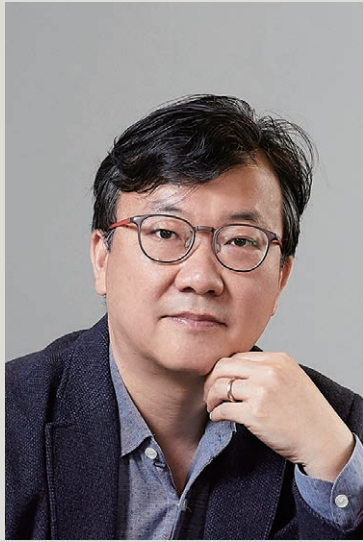
2023BAMA 운영속 운영위원장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넘어 미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페어의 본래 취지를 잊지 않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아트페어에 출품하는 작품과 전시 수준을 높이고 그 어느 때 보다 갤러리 선정에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밝혔다. 



3 오션갤러리의 Panoramique skyart (Kaohsiung)

4 유나갤러리의 Dots Accumulation (WWPER)

5 갤러리 츠 비첸의 the elephant in the room



글_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주요경력

- 현) 한양대 국제대학대학원 교수 (Ph.D. 경제학)
- 현) 한양대 사회혁신융합전공 주임교수
- 현) 기재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 심의위원
- 현) 감사원 인구정책 자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

주요저서

- 소멸 위기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었나?
- 대한민국 인구트렌드 2022-2027
- 각자도생 사회

소멸 경고 넘어설 로컬형 기업도시

인구해법은 세대전체의 대타협과 사회구조의 재조정에서 시작된다. 백지에서 시작하는 심정으로 상상과 혁신이 필수다. 정부는 지면을 바꾸고, 기업은 물감을 내놓고, 가계는 칠하는 삼자협력이 권유된다. 시간은 없다. 한국의 인구변화는 전세계가 지켜본다. 단시간에 그토록 급변동을 현실화한 사례가 없다. 인류역사상 전무후무의 신기록(2022년 출산율 0.75명 추정)을 보며 반면교사를 떠올린다. 피할 수 없다면 담대히 맞서는 수뿐이다. 달라진 게임원칙의 새로운 한국 모델이 시급하다. 정부는 큰형님답게 이해관계·당리당락을 넘어 기업의 인구방책을 유도·지원할 맞춤형 전략에 나설 때다. 기업은 실질적인 인구해법을 위한 자원투입·가치창출을 제도화할 때다.

정부실패 대체할 기업등판의 기대효과

고용창출은 기업 역할이다. 정부발 안전장치는 버퍼존에 한정되는 게 맞다. 공공일자리로 대변되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빼면 일자리는 전적으로 기업관할이다. 이런 기업이 고달프면 일자리도 힘들어진다. ‘저출산=취업난’이면 일자리를 쥔 시장·기업의 역할·의지가 관건일 수밖에 없다. 시장실패가 있다고 심판이 선수로 뛰면 부작용은 커진다. 원활한 고용창출을 위한 유도·지원방식이 바람직하다. ‘기업성장 → 고용안정 → 청년희망 → 출산결정’은 상식적이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선약감등은 충분히 경험했다. 위법·범법행위는 원칙대로 맞서되 시장활력까지 규제자대라면 곤란하다. 어정쩡한 고정



관념으로 인구문제를 풀 수는 없다. 지원(Incentive)과 규제(Penalty)의 영리한 결합을 통한 고용독려가 좋다. 저출산발 집단우울은 사회전체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도 쉽잖은 위험 경고다. 정부·기업의 달라진 이인삼각 협력체제로 집합성과를 노릴 때다.

ESG를 분해하면 공통분모는 ‘인구문제’

기업도 달라진다. 주주중심·이익극대화는 미묘한 변화 지점에 섰다. 돈만 잘 벌면 좋던 시절과 비교된다. 대신 지속 가능한 문제해결의 전도사로 위치한다. 화두인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는 신기업가치의 강력 변수다. 아직은 환경오염(E)·격차양산(S)·편향지배(G)에 한정되나, 사회문제는 확장된다. 출산포기의 저감·방지도 기업의 새로운 해결과제다. 특히 저출산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의 압축판에 가깝다. 특히 S(고용평등·여성활약·노동환경·지역사회 등)는 저출산의 촉발변수다. 모두 인구 문제로 겹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앞날은 기업에 달렸다. 청년고용·출산장려를 위한 기업등판은 숙명에 가깝다. ESG는 귀찮고 값비싼 판지가 아닌 더 오래 잘 벌려는 차원이다. 팔아야 할 고객·시장이 있어야 매출·이익도 생겨난다. 즉 인구 위기는 악재보다 호재며, 경제·사회가치를 아우르는 양수 겸장의 기회다. 후속세대의 건강한 지속공급은 기업성장의 토대란 점에서 ESG 파도에 올라타는 노력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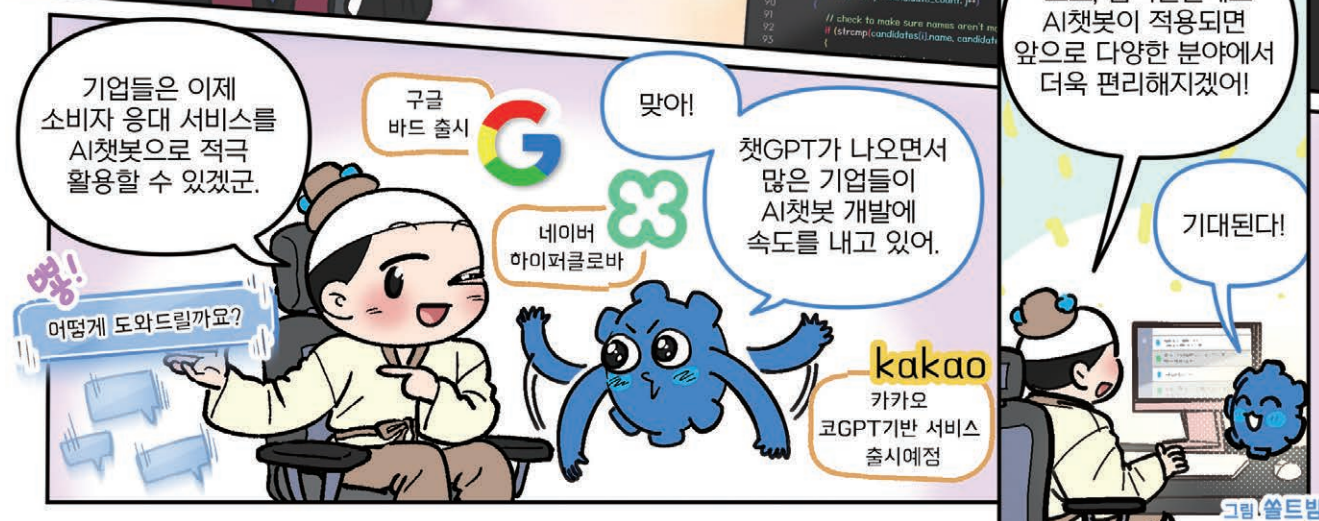
소멸지역+기업도시 ‘저출산 풀어낼 실험모델’

‘기업(고용)+인구(출산)’의 실천해법은 다종다양하다. 단 시간 한계와 기대효과를 볼 때 지역형 기업도시가 우선순위로

들어온다. 기업도시로 수많은 출산장치를 윈세트로 역자는 취지다. 초저출산에 ‘지방지역(고출산지) → 수도권(저출산지)’의 사회이동이 한몫했기에 지역기반 기업도시는 출산회복뿐 아니라 균형발전에 긍정적이다. 선행사례는 있다. 1958년 일본 아이치현 고모로시는 지자체명을 아예 도요타시로 바꿨다. 기업도시로의 절실한 전환실험이었다. 선택은 옳았다. 도요타시는 이후 자동차 공업도시를 지향하며 관련된 전후방 클러스터를 완성했다. 일자리는 늘었다. 총인구의 70~80%가 도요타 밸류체인에 일자리다. 도요타의 본사·공장·대학 등이 집적하며 역내의 발전적 순환경제를 달성했다. 법인세 등 재정수입이 탄탄하니 공공서비스 품질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인구쟁탈의 소멸경고보다 기업주도의 상생협력이란 선구 모델로 평가받는 이유다. 지역은 거둬해 발전한다. 회사와 주민을 잇는 사회공헌·자원공유가 활발하다. 회사병원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공유전기차로 이동편의를 돕는다. 반대로 금융위기 때 잉여화된 외국인근로자는 시장국이 고용·취업을 도와줬다. 정상화 후 회사복귀로 이어지며 연대피플을 맞췄다.

기업등판 ‘영웅의 귀환은 성대한 대접으로’

지역소멸의 대안비전은 기업도시 모델로 현실화된다. 상당한 특례조치로 사활을 걸며 테슬라 본사를 유치한 텍사스 오스틴이나 아마존 제2본사를 들고고자 눈물겨운 유치총력전에서 승리한 버지니아 알링턴군이 대표적이다. 모두 기업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했다. 작게는 고용과 출산율, 크게는 경제와 번영을 추구한 소멸공간의 생존카드다. 고무적인 건 정부·기업의 변화지점이다. 신정부도 고강도의 고용창출을 우선한다. ESG를 품은 기업이 소멸지역을 고민하는 것도 그렇다. 기업도시는 둘의 달라진 상황변화가 적용될 우선 카드다. 정부는 복지적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적 산업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돕는 게 좋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기업활용설명서의 이해·적용이 중요하다. 기업도시는 잠재력과 지속성이 구비된 매력적인 선택지다. 부산처럼 대도시형 소멸경고가 구체적인 공간일수록 좋은 일자리의 효과성이 검증된 곳도 없다. 달라진 영웅의 새로운 귀환에 성대한 대접은 자연스럽다. 기업역할에 승부를 걸 때다. 🇸🇰



Chat GPT를 통해 알아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혁신

최근 미국의 스타트업 오픈AI가 선보인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향한 전 세계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챗GPT의 고도화된 생성형 AI 기술은 IT업계뿐 아니라 예술·교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챗GPT는 출시 40일 만에 하루 사용자 1,000만명을 넘기며 인류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새로운 혁신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물을 생산하며, 텍스트·오디오·이미지 등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하지만 독창적인 내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챗봇 등에 활용되었지만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챗GPT는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해당 분야에 방대한 양의 지식을 담은 에세이와 논문을 바탕으로 전문가 수준의 완성도 높은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 GPT(Generative·Pre-trained·Transformer)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사례 나와

챗GPT가 이용자들이 감탄할만큼 수준 높은 답변을 내놓자 활용 가능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챗GPT를 시험해본 결과 의사시험, MBA, 로스쿨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챗GPT를 활용하여 신문기사 작성, 수필·시·작곡, 작곡, 코딩까지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판사의 판결문 작성과 각종 논문 및 보고서 작성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실시간 민원 서비스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수행하는 많은 영역을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 서비스가 대체 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경쟁 본격 나서

챗GPT 열풍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AI챗봇 서비스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챗GPT를 자사 검색서비스인 ‘빙’에 탑재하여 AI기반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고, 구글도 이에 대응하고자 ‘바드(bard)’를 발표하였으며, 오픈AI는 챗GPT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발걸음도 분주합니다. 네이버는 직접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바’를 기반으로 검색결과를 고도화한 서비스 ‘서치GPT’를 선보일 예정이며, 카카오는 AI 전문계열사 카카오 브레인의 한국어 특화 AI모델 ‘코GPT’를 활용한 버티컬 AI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단점을 고려한 적절한 활용 방안 고려 필요

챗GPT의 성능으로 인해 교육계에서는 챗GPT를 과제 대필 등 부정행위에 사용할 경우 잡아내기 어려워 평가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 반면 챗GPT와 같은 혁신을 계기로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거나 우리 교육을 고민해 보자는 논의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챗GPT 서비스 차단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가짜뉴스 AI 보고서 대필 창작물 저작권 논란 등 각종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인류에 도움이 되는 장점들을 잘 살려서 활용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 부산시가 2030월드엑스포를 유치 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G 부산시가 2030년 월드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력한 제안서 개발: 부산시가 2030년 월드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안서가 필요합니다. 제안서는 부산시가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후, 그리고 이벤트의 가치와 비전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2. 파트너십 구축: 월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 문화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 지식 등을 공유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 경쟁 확보: 부산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로서,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유산, 혁신적인 산업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월드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부산시의 이미지와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인프라 개선: 월드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교통시스템, 숙박시설, 통신시설 등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이벤트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5. 예산 확보: 월드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금융제도나 스폰서십 등을 활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실제 챗GPT에 질문하고 받은 답변화면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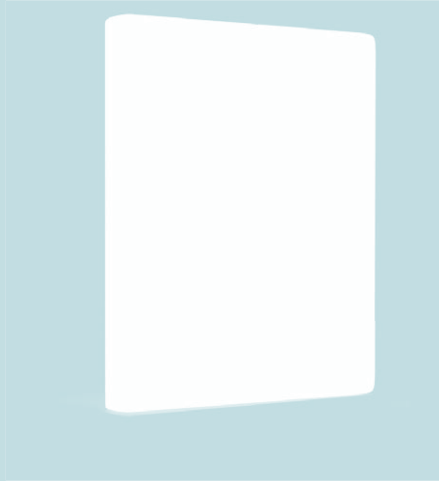
결제 권력을 소유하는 자가 부의 흐름을 지배한다



압도적 성공을 불러오는 한 곳의 차이

당신의 매력을 브랜딩하라

송은영 | 보아스 |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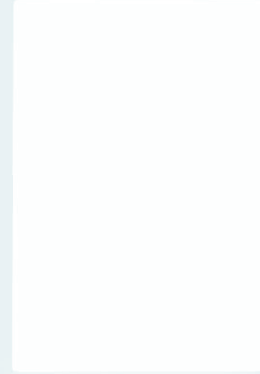
SNS 플랫폼의 발달로 누구나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마케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개인화 시대에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해 브랜딩하는 것은 큰 경쟁력이자 성공의 요건이다. 또한 기업에서는 조직원의 이미지가 기업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영업 현장, 면접 현장에서 짧은 순간에 자신의 매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은 이미지 브랜딩에 관한 이론, 성공인에게 배우는 이미지 메이킹, 자신의 이미지를 진단해보는 진단표, 실무에 적용하는 커뮤니케이션과 소통법 등 이미지 브랜딩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매력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자신의 일과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일구도록 실질적이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결제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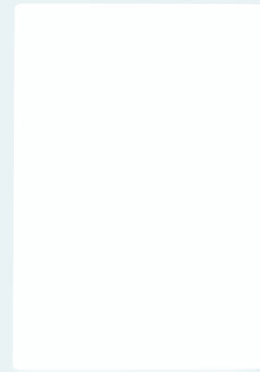
고트프리트 라이브란트, 나타샤 드 테란 | 삼호미디어 | 25,000원

이 책은 '세계 금융의 혈관'이라 일컫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 중심부에 있었던 두 전문가가 들려주는 돈과 결제, 우리 삶에 대한 심층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다. 현재 국제결제은행의 기술 고문인 고트프리트 라이브란트는 10여 년간 스위프트 CEO를 지냈으며, 또 한 명의 저자 나타샤 드 테란은 금융 저널 리스트로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즈》 등에 글을 기고했으며 스위프트 기업 부문 책임자를 지냈다. 결제 세계 전반에 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두 저자는 결제산업에서 일어난 중대한 혁신과 위기의 사례들을 쉽고 매력적인 스토리 텔링으로 담아내는 동시에 결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흐름을 선명하게 짚어냈다. 현대 사회를 굴러가게 만드는 '돈이 움직이는 방식', 즉 결제의 메커니즘을 해설하고, 우리 모두가 의존하는 결제 시스템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때때로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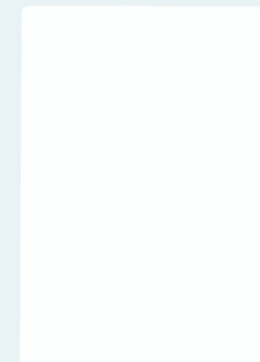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아웃



기후변화 10년 후 한국의 미래와 생존전략



60년 투자경험과 데이터로 돈의 흐름을 밝혀낸 가치투자법



실리콘밸리의 MZ들

김 스콧 | 청림출판 | 22,000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직장인들에게 사무실 밖에서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던 워라벨을 지나, 일과 삶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워라블이 신조어로 떠오른 만큼, MZ세대는 워라블이 무너지는 생각이 들면 가차 없이 퇴사를 결정한다. 조직에 더 나쁜 상황은 실제로 퇴사는 하지 않았지만 회사에 마음이 떠난 채 최소한의 업무를 하며 이직을 준비하는 이른바 '조용한 사직'이다. 이런 대퇴사 시대에 핵심 인력이 떠날까 마음을 졸이는 것은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다. 이 책은 실리콘밸리 리더들의 새로운 소통 방식 '지독한 솔직함'을 담은 책으로, 대퇴사 시대에도 팀원들이 머무르고 싶은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이야기한다.

기후 위기 부의 대전환

홍종호 | 다산북스 | 20,000원

이 책은 20대부터 인간을 살리는 따뜻한 경제학, 기후경제학에 골몰해 온 국내 최고 권위의 기후경제학자 홍종호 교수의 책으로, 지금까지 기후와 한국 경제를 위해 헌신한 40년의 연구 성과를 한 권으로 집대성했다.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은 기후위기가 환경, 과학,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온 지구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대두된 지금, 대한민국이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 가장 한국적이고 경제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 홍종호 교수는 기후문제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주체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위기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뜨거워진 지구는 우리의 먹고사는 일상생활부터 기업의 경영전략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경제활동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돈의 패턴

짐 콜렌 | 동양북스 | 18,800원

이 책은 60년 투자경험과 데이터로 돈의 흐름을 밝혀내고, 일반 투자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치투자법을 알려준다.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워런 버핏이라고 답할 것이다. 우린 그가 장기 가치투자자임을 알고 있다. ‘가치투자’가 좋다는 건 이제 알겠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얼마 만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 이 책은 투자자의 시야를 가리는 수많은 말과 상황들을 지우고, 오랜 투자경험과 데이터에서 가장 궁극한 핵심만을 뽑아냈다. 가치투자에 대한 호불호는 변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효과가 있었으며, 투자자가 가치 규율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한 계속 작동할 것이다. 데이터로 ‘돈의 패턴’을 읽어야 한다. 📊

Busan Economic News

2023 03 March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넥센그룹은 2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기 국민추천포상에서 강병중 회장이 45년 넘게 소외계층 돕기 등 기부를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강병중 회장은 동아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50억원 상당의 개인 주식을 기부하고,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억원을 기부하는 등 19년간 3개 공익재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자선 활동을 전개해 왔다. 강병중 회장은 “자선활동이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 저소득층과 소외된 이웃에게는 위로와 도움을 주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운철강(주) 등 부산기업 10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2억원 전달

세운철강(주)을 비롯한 10개의 부산지역 기업들이 2월 17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성금 2억원을 부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하였다. 이번 성금 전달에는 세운철강(주), 은산해운항공(주), (주)와이씨텍, (주)웨이브파크, (주)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선보공업(주), 송우산업(주), (주)강림CSP, (주)협성종합건설, (주)디알종합건설 등 10개 기업이 동참하였다. 부산 사랑의열매에 기탁된 2억원의 성금은 튀르키예 이재민 임시 보호소를 중심으로 식량 키트 및 텐트, 담요 등 보온용품을 지원하고, 이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인도적 구호 활동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선보패밀리 최금식 회장 김해시장애재단에 5,000만원 기탁

선보패밀리는 2월 14일 최금식 회장이 김해시미래인재 장학재단에 장학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선보패밀리 최금식 회장은 해외 저개발국가에 학교를 짓는 사업을 후원하고, 대한적십자 아너스클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가입과 2021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금식 회장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희망을 품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화승

70주년 맞이하여 전시·문화 공연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올해 70주년을 맞은 화승이 지역 청년 예술 지원과 함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오픈하며 지역 사회와의 접점을 넓힌다. 화승은 2월 14일부터 24일까지 ‘부산대 조형학과 동문전’을 연산동 사옥 2층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Do DREAM - 2023, 연결, 그리고 확장’을 주제로,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현역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금속조형전공 동문 30여 명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 이후에도 화승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 청년 작가 발굴 프로젝트, 각종 미술 전시회, 국립발레단 초청 공연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승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hwaseung_official'을 오픈하고, 창립 70주년을 맞아 화승의 새로운 소식과 정보 공유는 물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월 70명에게 기프티콘, 모바일 쿠폰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고, 여러 문화예술단체와의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화승 관계자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

캐나다 프리미엄 라거 ‘몰슨 캐네디언’ 출시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2월 6일 몰슨 쿠퍼스의 캐나다 대표 프리미엄 라거 ‘몰슨 캐네디언’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몰슨 쿠퍼스는 세계 3대 맥주 기업 중 하나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새롭게 선보이는 ‘몰슨 캐네디언’은 캐나다의 광활한 청정 자연을 모티브로 고품질 보리와 까다로운 기준으로 선별된 홉을 사용해 다른 제품에서 느낄 수 없는 신선함을 갖췄다.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몰슨 캐네디언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국내에 널리 퍼진 유럽 맥주에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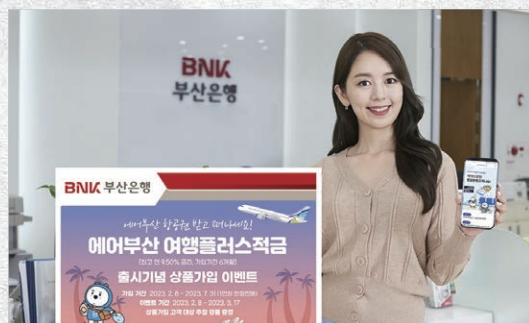
Busan Economic News

2023 03 March

BNK부산은행

최고 연 9.5% ‘에어부산 여행플러스적금’ 출시

BNK부산은행은 2월 8일 에어부산과 제휴를 통해 최고 연 9.5% ‘에어부산 여행플러스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에어부산 여행플러스적금’은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 최대 연 6.5%p를 더해 최고 연 9.5%를 적용한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기간은 6개월로 매월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App)을 통해 1인 1계좌까지 가입 가능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1만좌 한정으로 판매된다. BNK부산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영광도서

김윤환 대표이사 (재)부산진구장학회 이사장 취임

(주)영광도서는 2월 23일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재)부산진구장학회 이취임식에서 김윤환 대표이사가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김영욱 구청장, 서병수, 이헌승 국회의원, 하계열, 안영일 전 구청장과 박현철 구의장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윤환 대표이사는 “장학지원이 필요한 곳에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폭넓게 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굴해서 찾아가는 장학 지원을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김윤환 대표이사는 이날 취임식과 함께 열린 제27회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대학생 및 고등학생 51명에게 장학금 1억1천750만원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주)동성케미칼

소방관 공무상 장애·문화예술 지원

(주)동성케미칼은 2월 7일 대한소방공제회와 소방관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주)동성케미칼은 그룹사인 동성화인텍, 동성티씨에스, 제네웰과 함께 매년 영업이익의 0.1%를 대한소방공제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지만 직무 연관성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방관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해 소방관과 가족들을 다양한 공연에 초청할 예정이다. (주)동성케미칼 관계자는 “소방관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경성리츠

지진 피해 아동 후원금 전달

(주)경성리츠는 2월 1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어린이 긴급구호를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시리아 북부 지역 피해가정 및 어린이들을 위한 긴급구호 사업에 사용되며, 임시 주거용품 및 식수, 생활용품 등 긴급구호를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주)경성리츠 채창일 대표는 “희망을 놓지 않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피해자들과 아이들이 하루빨리 구조되어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에어부산(주)

인천에서 후쿠오카 주 13회로 증편 운항

에어부산(주)은 2월 16일 매주 7회 운항 중인 인천-후쿠오카 노선을 3월말까지 13회로 6편 증편하여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편으로 에어부산의 일본 노선 운항 항공편은 김해공항에서 매주 63편, 인천공항에서 매주 41편에 달한다. 3월말까지 에어부산의 인천-후쿠오카 노선 스케줄 편의성이 한층 높아져 이용객들의 여정 선택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수도권 시장에서 외형 확대와 실적 개선을 속도감 있게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주)태광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5천만원 전달

(주)태광은 2월 20일 튀르키예 지역에 발생한 지진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5천만원을 부산직접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태광 윤준식 부사장은 “지진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작은 정성이 조속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현재 (주)태광은 튀르키예 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서비스 안내

01 부산상공회의소 당연 회원기업 맞춤형 방문교육 지원 서비스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회원기업의 경영과 인재 양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직무·교양·법정 교육 등 분야별 전문 강사를 기업 현장에 파견하는 「방문 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은 전액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무료 교육 지원 사업이오니 임직원을 위한 사내교육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 지원기간:** 연중
- 나 지원대상:** 부산상공회의소 당연 회원기업
- 다 교육장소:** 회원기업 강당, 회의실 등
- 라 지원내용:** 강사로 및 강사교통비 전액지원
- 마 교육분야:** 법정업무 / 인사·조직 / 서비스·마케팅 / 품질·안전관리 / 스트레스·건강관리 / 개인정보·사내보안 등 기타 업체에서 요청하는 주제
- 바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메일(dudrb@korcham.net) 또는 팩스(051-990-7069) 송부
※ 신청서 양식은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bcci.or.kr) 교육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 문의처:**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Tel. 051-990-7064)

02 부산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해당사업 분야에 맞는 입찰정보만을 선별한 맞춤형 입찰, 낙찰 정보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입찰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확대 및 공공조달 관련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내 기업은 무료로 이용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맞춤형 홈페이지 운영(<http://bid.bcci.or.kr>)**
 - 국내에서 시행하는 입찰·낙찰정보를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선별 무상 제공
 - 전문 콜센터(☎1644-9927)를 통한 입찰 관련 상담 지원
- 나 전자입찰 교육**
 - 공공조달 전자입찰,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교육 시행

03 3톤 미만 지게차 교육 사업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개최를 통해 회원기업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면허취득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가 교육일자:** 2023년 1월 ~ 12월(교육기관과 일정 협의)
- 나 신청자격:** 지역무관,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 다 신청기한:** 교육인원 소진 시 까지 선착순 마감
- 라 교육시간:** 총 12시간【이론(6시간), 실기(6시간), 총 2일간 진행】
- 마 교육장소 및 문의처**

교육 장소	이론	실기
신한양직업전문학교	부산시 부산진구 서전로 10번길 28 오기빌딩 7층	부산시 사하구 두송로 194-3
김해중장비운전전문학원 (이론·실기 동일장소)	경남 김해시 유하로 179-59(유하동)	경남 김해시 유하로 179-59(유하동)
부산중장비학원 (이론·실기 동일장소)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3로 50-11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3로 50-11
새동아직업전문학교 (이론·실기 동일장소)	부산시 강서구 영강길 172번길 35-7	부산시 강서구 영강길 172번길 35-7

※ 참가신청 문의처: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Tel. 051-990-7064)

- 바 교육비:** 350,000원(특별할인가) 회원기업 10명 이상 접수 시 추가할인 적용
- 사 납부방법:** 교육기관 상담 후 입금 또는 카드결제
- 아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메일(dudrb@korcham.net) 또는 팩스(051-990-7069) 송부
※ 신청서 양식은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bcci.or.kr) 교육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즐거로운 회원생활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2023년 3월)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각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안내드립니다.



급여/휴가계산, 4대보험(연금/건강/산재/고용)

일 시 2023. 3. 10.(금) 09:30~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박인아 노무사(노무법인 유엔)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주 제	내 용
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 최저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의 기본개념 이해, 지급방법의 4대원칙 2023년도 최저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개념 및 적용실무사례 금품청산 및 소멸시효 	보험적용 및 자격관리 (취득/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및 근로자 적용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연장·야간·휴일근로계산 (대체)공휴일 관리 연차휴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야간, 휴일근로계산 및 수당지급방법 (대체)공휴일 관리 및 휴일대체/보상휴가제 변경된 노동부 기준에 의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 계산 사례 및 사용촉진제도 	보험료 계산, 보수총액신고, 기타 실무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부과기준, 보수월액 변경방법 건강보험 퇴직정산 및 연말정산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근로자 휴직시 보험처리,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험 관리

MZ세대에 변화하는 인사관리의 노무 대응방안

일 시 2023.3.17.(금) 09:30~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이춘성 노무사(서울노무법인)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주 제	내 용
MZ세대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MZ세대와 변화하는 노사관계 각 세대별 특징과 이해관계의 이해 세대간 갈등 사례 분석 	MZ 세대와 변화하는 노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MZ 세대의 특징: 기존 노동조합과 다른 새로운 노동조합 기존 노사관계 대응의 패러다임 변화 MZ 세대 노조의 대응 방안
MZ세대와 근로기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MZ세대의 특징: 원칙과 공정 세대 교체로 인한 노동법 위반 사례 분석 세대간 갈등과 노무 문제 대응 방안 	직책자로서의 구성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꼰대'입니까? 다가가는 것보다는 지켜보는 서번트 리더십 능력있는 후배를 양성하는 방법

2023년 개정세법 해설과 전사원이 알아야 할 접대비와 소비성 경비에 관한 지출 증빙서류 세무관리

일 시 2023.3.23.(목) 09:30~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오종원 회계사(상속·증여세무전문가)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주 제	내 용
2023년 주요 개정세법 해설과 소비성경비지출시의 적격증빙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개정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주요 내용 해설 적격증빙의 종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주요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2023년 개정된 지출증빙 관리시의 유의사항 적격증빙 구비에 대한 최신 행정해석 분석 	접대비 지출시의 적격증빙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개정 접대비 지출시 세무관리 접대비와 소비성경비의 세무관리 차이점 분석 상품권 등 지출시의 세무관리 국세청 세무조사시 주요 추정사례 분석
지출증빙 특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유형 분석 	기타소득 등 인적용역 지급시의 적격증빙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개정된 인적용역 대가지급시의 증빙관리방법
		조세전문가의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강생 개별사안에 대한 조세전문가의 개별상담

하루 만에 끝내는 무역 실무 기초

일 시 2023.3.27.(월) 09:30~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오시학 대표(국제무역컨설팅)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주 제	내 용
무역실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파상, 무역회사, 무역상사의 활동범위 수출절차 수입절차 	국제물류 및 해상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운송 실무와 선하증권(B/L) 항공운송실무와 항공화물운송장(AWB) 해상보험 실무와 적하보험증권
수출입 관련 법규와 HS 코드 분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무역법 / 관세법 / 외환거래법 HS Code 분류방법 국제무역 관련 국제규칙 	수출입 통관 및 관세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통관 실무 수입통관 및 관세실무 관세환급 방법
무역계약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무역계약의 체결 ncoterms 2020의 개정내용 	무역클레임/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레임의 의의 및 제기절차 클레임 해결방법 무역사기 예방책10계명 무역리스크 관리방법
대금결제 및 신용장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결제방법의 종류 신용장(L/C) 거래 메카니즘 신용장 통일규칙(UCP600) 	무역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용어 해설 및 무역전문가의 수강생 개별 Q&A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 안내

층수	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월관리비(원)	비고
	임대	전용				
4층	60.0평 (198.0㎡)	36.0평 (118.8㎡)	78,000,000	780,000	1,560,000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별도

※ 문의 : 경영지원본부 남정호 과장대리 (051-990-7034)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임대 안내

1F 대강당



좌석 수 : 360석(극장식)
면적 : 144평(476㎡)
현판규격 : 710cm×7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8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상의홀



좌석 수 : 200석
면적 : 160평(528㎡)
현판규격 : 710cm×9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7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국제회의장



좌석 수 : 100석
면적 : 99평(327㎡)
현판규격 : 500cm×8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8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80,000원
오후 14:00~18:00	35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20,000원
1일	500,000원	냉·난방	100,000원

2F 중회의실



좌석 수 : 70석
면적 : 57평(190㎡)
현판규격 : 500cm×8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2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70,000원
오후 14:00~18:00	28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00,000원
1일	400,000원	냉·난방	80,000원

회의실 사용료 할인안내

50% 할인
회원업체(당연)

20% 할인
회원업체(임의), 입주사, 3일(전일) 연속 사용업체

☎ 임대문의 : 경영지원본부 TEL 051.990.7150

엑스포 참가하러 왔소이다.



대한민국과 세계박람회 맨 처음 인연은 1893년 시카고박람회의 '조선관' 설치였습니다.

137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엑스포 사랑.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응원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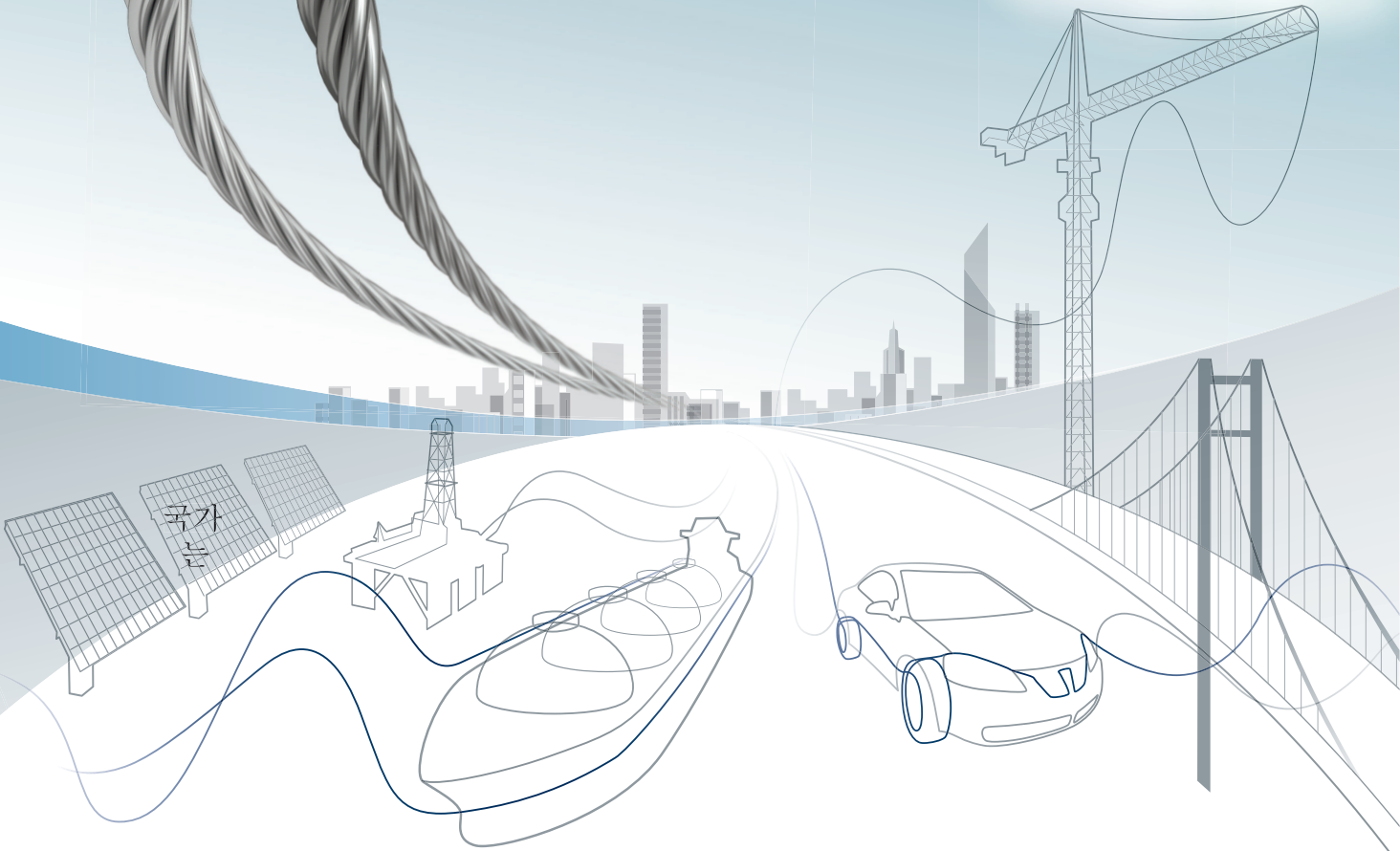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단이 세계 곳곳에서 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World Expo 2030 Candidate

와이어가 함께 여는 세상

세계 곳곳의 산업 현장과 일상 생활에서
고려제강의 와이어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이 됩니다.
미래의 새로운 길,
고려제강의 와이어가 함께 열겠습니다.



고려제강은 스프링 와이어, 비드 와이어, 스틸코드, 아연도 강연선, Wire Rope 등의 제품을 생산, 전세계에 공급하는 특수선재 전문기업입니다.